

조선시대 혼인의례와 혼례복에 관한 스토리텔링 원천자료 분석

안인희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강사

A Study on the Souce of Storytelling of Korean Wedding Ritual and Costumes in *Chosun* Dynasty

In-Hee Ahn

Lecturer,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2013. 10. 29. 접수; 2014. 1. 3. 수정; 2014. 1. 16. 채택)

Abstract

Storytelling contributes to easy flowing of cultural contents, and cultural original materials offer the creative subjects of cultural content. Now, in Korea, thanks to the Korean wave and etc, new kinds of cultural contents are requested and the demand for the original materials of storytelling has been increasing. A 5,000-year-old history, Korean traditional culture is the storage of the original materials of storytelling that can offer the creativity and the competitiveness, which are able to secur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Particularly,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cultural archetype materials in the wedding ceremony and wedding costumes.

This research, thus, is aimed at providing the subject materials for the cultural content development which are various and interesting by developing the original materials of storytelling on the wedding ceremony and wedding costumes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the study for the wedding procedures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the original sources within wedding ceremony created in the process where wedding customs in Joseon Dynasty and China were compromised are suggested.

Further, in the research for the original sources on the wedding costumes associated the wedding ceremony, the original source of storytelling which are showed in a nation and an individual in the process where the wedding ceremony symbolizes the most important marriage one of the fomalities performed in one's life is suggested.

Key Words: Wedding ritual(혼인의례), wedding costumes(혼례복), Storytelling(스토리텔링), The souce of culture(문화원천자료)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스토리텔링 원천자료란 스토리텔링과 문화원

천자료의 합성어이다. 스토리텔링은 문화컨텐츠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며, 문화 원천자료는 문화컨텐츠의 창작소재를 제공한다.

문화 원천자료란 문화컨텐츠로 변형되기 이전에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문화원형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영화나 게

Corresponding author ; In-Hee Ahn

Tel. +82-10-5304-9569, Fax. +82-2-3408-4343

E-mail : ini1214@hanmail.net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G00088).

입,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대본, 축제기획 등의 문화콘텐츠로 탄생한다. 인간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며, 자신의 이해와 경험을 전달한다.

반만년 역사의 한국 전통문화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의력과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원천자료의 보고이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족고유의 문화와 주변국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역사, 구비문학, 민속, 예술, 건축, 음악, 복식 등의 문화원형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관광, 문화, 교육, 예술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문화의 독창적인 문

화원형 개발을 위하여 우리민족의 역사, 유적지 등에 관한 스토리텔링 원천자료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류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요구되어 스토리텔링 원천자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문화 원천자료 발굴은 이미 스토리텔링의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화, 설화, 역사, 유적지에 집중되어있고, 의례, 복식, 건축, 음악 등은 형태적 고증으로 시대를 제시하는 단편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 신화, 설화 등과 같은 이야기형 소재의 연구와 개발이 오랜기간 진행되고 있음에도 문화 원천자료의 소재는 여전히 빈약하며 비 이야기형 소재에 대한 연구는 형태적 특성과 고증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의례, 복식 등과 같이 스스로는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각각의 독특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비 이야기형 소재에 대한 문화 원천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남녀의 혼인의례는 우리민족의 형성시기부터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조선시대 혼인은 당시의 사상을 대표하는 의례로서,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과 관계된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혼인의례에는 당대의 핵심적인 문화원형적 스토리가 담겨져 있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반영하는 유물이 혼례복이다. 따라서 고대부터 내려오는 혼인문화와 조선시대의 사상, 경제, 문화 등과 결합된 혼인의례와 혼례복에

관한 문화 원형자료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혼인의례와 혼례복에 관한 스토리텔링 원천자료를 개발하여 다양하고 흥미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혼인의례와 조선시대 의례복의 대표적인 형태인 조선시대 혼례복에 내재된 흥미 있는 스토리텔링 원천자료 개발을 통하여 문화한국의 국가 브랜드 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조선시대 일반 혼인의례와 남녀 혼례복에 내재된 스토리텔링 원천자료 개발을 연구범위로 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 혼인의례는 조선후기 우리고유의 혼인문화로 자리잡게 된 반친영례를 중심으로 한 율례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시각자료로는 조선시대 풍속화, 유물을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

본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의 혼인의례 과정에 관한 스토리텔링 원천자료를 제시한다. 둘째, 조선시대 혼인의례와 혼례복에 관한 스토리텔링 원천자료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토리텔링과 문화원형 원천자료

1)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역할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단어, 이미지, 소리를 통해 사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박소화(2012)는 “인간은 이야기 하는 동물이므로,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

과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존재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인간의 속성으로 인하여 라틴어로 인간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나랜스(Homh Narrans)’라고 한다.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사건을 잘 짜인 스토리로 감각에 호소하고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인류의 담화예술로서, 인간세계의 생존과 문화세계의 밑바탕이 되었다.

류은영(2009)은 스토리 또는 내러티브는 모든 문화권에서 각기 다른 목표를 지닌 콘텐츠인, 교육·문화·보존·엔터테인먼트의 공통된 도구로써 공유되어 왔다고 하였다. 스토리텔링은 세상을 묘사하여, 타인에게 일련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창조적 모형으로, 실제 혹은 상상의 사건을 엮어 구성되기도 한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각 요소의 이미지를 끌어내어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효과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스토리텔링의 역할은 문화산업에 있어서 콘텐츠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최예정(2009)은 문학에서의 나레이티브 스토리텔링은 주인공의 경험이 독자의 경험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감동을 준다고 하였다. 차유철(2009)은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존의 이야기나 창작 스토리를 담화형식으로 제공한다고 하였다. 정보제공을 위한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분야 중 박물관 스토리텔링은 인간이 남긴 유물, 유적을 통하여 그 시대의 철학, 사상 등의 맥락적 스토리를 현재와 소통하게 한다.

이와 같은 스토리텔링의 활용은 고대문화에서부터 디지털 매체로 인해 등장한 다선형 서사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 하다. 또한 인류와 연원을 같이 하며 과거의 전통문화와 현대와의 소통의 도구로 활용된다.

2) 스토리텔링 원천자료 활용

문화 산업계에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순수 재료나 순수자료를 ‘원천자료’ 또는 ‘원형자료’로 명명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진흥원(2002)에서는 원천자료라는 것은 상품으로 가공, 변형되기 이

전 상태의 자료로서, 문화에서 사용되는 원천자료라는 단어는 ‘원래의 문화현상 그 자체’를 가리키며, 문화원형이라고도 한다. 문화는 동일한 시간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일정한 목적이나 생활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활동 및 활동의 결과로서 이로 인해 이루어진 역사적 정신적 결과물이라 정의한다. 융(Carl Gustav Jung, 1921)은 원형이란 선조의 과거 역사가 담긴 잠재된 기억 흔적의 창고이자 선조의 반복적인 경험 축적의 부산물인 집단적 무의식이라 정의한다. 따라서 문화원형이란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물이 구체화된 보편적인 표상이나 결과물을 의미한다.

문화원형 원천자료의 범주에 대해서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2002)에서는 역사, 구비문학, 민속, 예술, 건축, 음악, 복식으로 분류한다. 역사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삼국사기, 왕조실록 등의 기록물, 전통적 행사 등이 포함된다. 구비문학에는 신화, 전설, 민담, 소설 등이 포함되며, 민속에는 의식주, 신앙, 세시풍속, 관혼상제 등이 포함된다. 예술에는 공예, 회화, 무용 등이 포함되며 건축에는 공공건축과 민간건축, 복식에는 신분별, 시대별 복장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한다. 박정희(2004)는 민족문화의 고유성 규명을 위한 영역으로 공간, 시간, 문화 주체, 사상, 예술, 생활, 과학기술 분야로 모두 해당되며, 크게 총괄적 문화, 외면적 문화, 내면적 문화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총괄적 문화에는 민족, 강역, 역사가 포함되며, 외면적 문화에는 자연, 문화, 사회, 내면적 문화에는 사고, 언어, 예술이 포함된다고 정의한다.

한 국가의 문화 원천자료는 해당 지역과 시대의 사회, 문화가 지니고 있는 맥락적 요인이 작용하여 각각의 독특한 이야기가 형성된다. 문화원형은 자체 스토리 여부에 따라 이야기형과 비 이야기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야기형 소재의 범주에는 그 자체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신화, 전설, 민담, 역사 등이 포함되며, 비 이야기형 소재의 범주에는 정신적 문화원형에 속하는 신앙, 세시풍속, 관혼상제 등이나 물질적 문화원형에 속하는 건축, 복식 등이 포함된다. 이야기형 소재 뿐 아니라 비 이야기형 소재의 문화원형 역시 그것이 형성되기까지 해당 문화권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과 관계된 이야기와 그 문화 원형을 매개체로 한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야기형 소재에 대한 문화원천자료는 문학,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캐릭터, 출판, 디자인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야기의 원형연구는 주로 문화산업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하나의 원천자료는 문화산업에서 OSMU(One source Multi Use)로 개발되어 활용된다. 고대 및 중세의 신화와 전설을 원천자료로 한 ‘반지의 제왕’의 경우 소설로 1억 부 이상 판매되고 또한 영화로 제작되어 2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본기2 대무신왕편을 원천자료로 하는 바람의 아들은 드라마, 뮤지컬, 게임 등 다양한 OSMU 콘텐츠로 개발되어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비 이야기형 소재는 전통문화행사나 시대의 상징물 등의 소극적 개발에 그치고 있다. 한 예로 세시풍속, 관혼상제, 건축, 복식, 음악 등이 복합적으로 제시되는 대표적 문화원형인 전통혼례는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 등에서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 민속촌이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전통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극적 활용에서조차 일부 전통혼례행사는 관람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어 혼례절차 언어에 대한 단순한 이해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야기형 소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었듯이 미 개척분야인 비 이야기형 소재에 대한 원천자료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이야기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신(新)성장 동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스토리텔링 원천자료의 성과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기존에 개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스토리텔링 원천자료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III. 혼인의례와 혼례복에 관한 스토리텔링 원천자료

1. 혼인의례 과정

조선 초기 개혁가들은 고려와 다른 전통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올바른 전통을 창안하기 위한 의례의 보급에 착수하여, 송나라 주희(朱熹)의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조선사회에 적용하려 하였다. 고려 말에는 성리학(性理學)적 이데올로기를 수용함으로써 정절 의식이나 처첩관계, 혼인, 친족구조 등 여러 면에서 부계 중심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자가례」에 입각한 유교식 혼례는 기존의 혼례방식인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혼례를 올리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에서 벗어나 중국의 혼례제도인 신부를 맞이하여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친영(親迎)에 두고 있다. 혼례절차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네 단계로 되어있다.

「대동야승(大東野乘)」에서는 중국의 혼례 풍속을 따른 친영의 혼인의례는 그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반친영(半親迎)의 형태로 조선의 생활속에 수용되었다고 하였다. 「주자가례」의 혼례절차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이를 조정하여 「사례편람」이 편찬되었다. 하지만 「사례편람」의 혼례절차 역시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1844),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납폐 절차 후 친영의 예를 따르도록 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남자가 여자 집으로 혼례를 치르러 가는 반친영례가 주로 행해지고 있다. 이 혼인의례 절차는 혼인하는 날 저녁에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행하고 그 다음날 시부모를 뵈는 형태이다. 반친영례는 유교적 예법을 이상으로 삼은 조선왕조에 의해 우리 고유혼례문화인 남귀여가혼이 유교적인 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창출한 혼례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일반세속에서 행한 혼례는 육례절차로 구성되어 혼담, 납채, 연길, 납폐, 대례, 우귀 순이다(정연학, 2011). 조선시대 반친영에 의한 양반가의 혼인절차는 혼례 전 준비과정과 혼례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 의혼과정의 풍속과 상징성

의혼과정	풍속 및 해석	풍속	상징성
혼담		월하선옹이 혼사가 적혀있는 책 속의 남녀를 자루 안에 있는 붉은 실로 묶어 놓으면 원수지간일지라도 운명적으로 맺어진다.	*혼인 배우자는 반드시 있다는 혼인의 필연성을 강조
납채		예를 갖추면 처가 되고 임의로 관계를 맺으면 첩이된다.	*중매로 이루어진 혼사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함.
연길		혼사 날을 받으면 혼례 때 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랑은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	*혼사에 대한 벽사 의미 *대례인 혼례를 위하여 제례를 치루는 금전적, 육체적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면제해 줌.
납폐		납폐의 수량은 적어도 2개는 넘어야 하며 많아도 열 가지를 넘으면 안 된다.	*예를 갖추되 혼인사치를 금하고자함.

1) 혼례 전 준비과정

혼례를 치루기 이전의 준비과정은 의혼이라 하여 혼례를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혼담(婚談), 납채(納采)와 사주보내기, 연길(涓吉), 납폐(納幣) 순으로 이루어진다.

혼담은 혼인을 타진하는 과정으로 매파(媒婆) 또는 중신어미나 중신아버가 양가를 드나들며 혼인을 성사시킨다. 세간의 속설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중매쟁이는 월하선옹이라 한다. 그가 혼사가 적혀있는 책 속의 남녀를 자루 안에 있는 붉은 실로 묶어 놓으면 원수지간일지라도 운명적으로 맺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대상이 원수일지라도 배우자가 반드시 있다는 혼인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당시의 혼인풍속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납채는 중매인을 통해 혼담이 오고간 후 양가의 승낙을 받고 나서 남자 쪽에서 공식적으로 여자 쪽에 혼인을 청하는 예를 말한다. 신랑 측 혼주는 공식적인 의례에 따라 신부 집에 청혼서(請婚書)와 남자의 사주(四柱)를 보낸다. 구두에 의한 혼담에 이어 납채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공식적인 절차는 조선시대 혼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예기』, 「내칙」에는 “예를 갖추면 처가 되고 임의로 관계를 맺으면 첩이 된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반드시 중매 혼으로 이루어진 혼사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연길은 좋은 길조를 고른다는 의미로 신랑 측에서 사주를 보내면 신부 집에서 혼인날을 잡아

신랑 집에 택일날짜를 보내는 절차를 말한다. 날을 받으면 혼례 때 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랑은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 또한 연길서장은 중매쟁이나 복 많은 사람 편에 신랑 집으로 보낸다. 이와 같은 절차는 혼사에 대한 벽사의 의미도 있겠으나 대례인 혼례를 위하여 제례를 치루는 금전적, 육체적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면제해 주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납폐는 허혼서(許婚書)와 연길을 받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서지와 폐백(청색배단과 홍색비단)을 넣은 함을 보내는 과정이다. 납폐란 신랑 측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일종의 혼인 선물로 민간에서는 예장, 납징, 혼수, 봉채, 큰짐, 예물이라 불리었다. 예물의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선물의 내용과 수량을 적은 봉투도 함께 넣기도 하는데 납폐의 수량은 적어도 2개는 넘어야 하며 많아도 열 가지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예를 갖추되 혼인사치를 금하고자하는 의미로 여겨진다.

납폐 시 함에 넣는 예물은 지방과 사회계층, 빈부격차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혼서지, 신부의 상하의 두벌, 채단과 선물의 목록이 적힌 물목이다. 원래 폐백에 사용되는 비단은 채단이라 하여 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을 사용하였으나, 점차로 검은 비단 대신 푸른색 비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폐백에 청홍비단을 넣는 방법은 각각 두필의 비단을 청실과 홍실로 묶어서 넣는다. 채단 이외에도 함에 넣는 물목은 곡물, 목화씨, 숯, 고추, 서석, 부들고리, 수수깡 등이 있다.

함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각각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혼인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채단의 푸른색 (또는 초기에 사용되었던 검은색), 붉은색 비단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청홍은 음양의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은 하늘을 상징하고 홍은 땅을 의미한다. 또한 붉은 색은 5색 중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색이고, 푸른색은 색 중에 우두머리로 동방의 시작을 뜻한다. 이 밖에 쌀은 양식이고 수수는 제물용 곡식이며, 오색실은 몸을 굽혔다 폈다 할 때마다 생기는 무늬와 채색의 무궁함을 의미한다. 숨은 조화롭고 부드러운 뜻을 취해 약혼녀가 유순한 미덕을 갖추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그 밖에 돈, 목화씨 부들, 갈대 등도 길상과 축송, 부부애, 부귀다남 등의 깊은 뜻과 상징성이 담겨있다(정중수, 2008).

<표 1>은 혼례전 의혼과정에서 나타나는 풍속으로 이는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예를 갖추되 조선시대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2) 혼례 과정

육례에 의한 혼례과정은 대례(大禮), 우귀(于歸)까지의 과정이다. 대례는 신랑이 말을 타고 본가를 떠나는 초행(初行)으로 시작되며 신랑의 친구와 하인 등을 동행한다. 대례(大禮)는 혼례 복으로 갖추어 입은 신랑, 신부가 신부의 집 마당의 초례청(醮禮廳)에서 행하는 혼례식이다. 우귀(于歸)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1) 초행

초행(初行)은 신랑이 혼례를 올리기 위해 신부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그림 1>은 김홍도가 그린 평생도 중 신부의 집으로 혼인하러가는 신랑의 초행 장면이다. 의혼의 과정을 거친 신랑 일행은 신부의 집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방'이라는 일종의 신랑 대기실에서 여장을 풀고 음식을 먹고 혼례시간까지 쉬면서 대기한다. 신랑은 그곳에서 사모와 각대, 관복으로 성장(盛裝)하고 신시(申時)에 맞추어 신부집으로 출발한다. 백마를 타고 있는 신랑의 복장

은 사모에 적단령을 입고 흑화를 신고 있다. 흑립에 홍단령을 입고 있는 일행 중 맨 앞의 두 사람은 신부 집에서 신랑 일행을 마중 나온 집사이며, 전립에 직령 포를 입은 네 명의 청사초롱 행렬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어서 주립에 흑단령을 입고, 붉은 보자기에 쓴 기러기를 든 기력아비가 따르고 있다. 그 밖에 신랑의 말을 이끄는 군의 하급관리 둘, 흑립에 직령포를 입고 있는 네 명의 호위군, 여중, 신랑 뒤에 장옷을 입고 있는 신랑 유모, 행렬 맨 뒤에는 후행이라 하여 신랑의 친구가 초립에 직령 포를 착용하고 있다.

신랑 초행을 따르는 후행은 신랑이 속한 집안의 부와 위세를 과시하는 과정이다. 후행의 규모는 신랑 집안의 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초롱의 숫자도 신랑 부친의 계급에 따라 정해져서, 2품 이상은 열자루, 3품 이하의 여섯 자루를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혼례는 개인 차원을 넘어 가문의 행사이며, 마을사람들이 참여하여 보고 즐기는 잔치였다.



<그림 1> 성복한 신랑의 초행(18세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대례

신랑일행은 신시에 맞추어 신부집 마당에 도착하여 초례청에서 대례를 치룬다. 『가례중해』(1792)에서는 '혼례에 관계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와 밝기 시작할 때의 시간을 쓴다'고 하였다. 군자가 일을 거행할 때 밝은 때를 숭상하기 때문에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는 모두 밝을 때 행한다. 하지만 혼례는 해가 저물 무렵인 신시(申時)에 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으로 여겼다. 음양으로 볼 때 저녁 무렵인 신시는 음기가 때에 맞아 타고난 성질을 부여받는 시간이며 만물이 형체를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신시가 되면 오시(午時)에 가장 높아진 양기가 점점 소멸하기 시작하고 오시에 시작된 음기가 성장하여 음양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시간으로 혼례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였다(정중수, 2008). 남존여비의 관념이 지배적이던 조선시대에도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여성이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신랑, 신부의 대례장면으로 19세기 말 개화기의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이다. 신부 질서가 와해된 19세기 말 초례청의 모습이므로 18세기 양반가의 혼례에 비해 조악한 모습을 보여준다. 대례를 치루기 위하여 신부의 집에는 대청이나 마당에 병풍이나 차일을 치고 초례청을 만든다. 신시에 신부의 집에 도착한 신랑은 부정을 없앤다는 뜻에서 짚불 위를 넘어간다. 대례는 기러기를 전안상에 올려놓는 전안례로부터 시작한다. 전안례에 사용되는 기러기는 한 평생 의종게 사는 동물로서 부부간의 믿음과 화목, 정절 질서의 상징이다. 기러기의 의미는 신부는 남편을 따르겠다는 뜻이며, 신랑은 평생 기러기와 같이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이다. 초례청에서 집례자가 홀기에 의해 전안례를 마치고 신부와 마주서 교배례, 합근례의 차례로 혼례를 진행한다. 합근례에서는 신랑 신부가 서로 표주박으로 술을 마시고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준다. 표주박은 조롱박을 반으로 찢개서 청실과 홍실로 묶은 것으로 부부의 일심동체를 의미한다. 또한 소나무와 잣나무로 만든 젓가락인, 송백저(松柏箸)로 서로 안주를 집어주는데 이는 부부의 절개와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림 2> 섭성한 신랑, 신부의 전안례와 초례 (19세기)
(출처: '독일 함브르크 민속박물관' 소장)

(3) 우귀

신부의 집에서 대례를 마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향하는데 이를 '우귀' 또는 '신행'이라 한다. 보통 우귀는 혼례 당일에도 하기도 하지만 혼례 사흘 뒤에 시집으로 가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다. 18세기 『경도잡지』에서 우귀모습을 묘사한 것을 보면 “신부는 황등 꼭지 팔인교를 타는데 4면에 발을 드리웠다. 앞에는 네 쌍의 청사초롱과 한 쌍의 안복(案袱)을 세우고 열 두 명의 여종이 대추, 건포, 옷함, 경대 등을 머리에 이고 부용향을 받쳐 들고 곱게 치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쌍을 지어 길잡이를 선다. 유모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 장옷을 쓰고 말을 타고 뒤따르며 또한 아전과 하인들은 전후좌우를 옹위하게 한다.” 고 하였다.



<그림 3> 신랑집으로 향하는 우귀 (19세기)
(출처: '독일 함브르크 민속박물관' 소장)

<표 2> 혼례과정의 풍속과 상징성

혼례과정 \ 풍속 및 해석	풍속	상징성
초행	후행의 규모	신랑 집안의 부와 위세의 과시
	청사초롱의 수	신랑 아버지의 직위에 따라 달라짐
대례	혼례시간(신시)	음양의 조화
	짚불	부정을 없앴
	기러기	신부는 남편을 따름 신랑은 의리를 지킴
	표주박	부부 일심동체
	송백저	부부의 절개와 복
우귀	신부가마 위의 호피나 엑스자 결박	* 유목시대 유습으로 결박 의미 * 부정방지, 시집살이, 벽사 * 신부가족들의 신부에 대한 강한 집착과 애착
	숯, 고추, 곡식씨앗	* 다산, 농사의 풍요
	종이조각, 형곶조각, 소금, 쌀봉지	* 벽사

<그림3>은 19세기 우귀장면으로 경도잡지에서 표현과는 달리 행렬의 규모는 초라하지만 시각자료가 부족한 18세기 우귀장면을 짐작하게 한다. 신부 가마와 옆에 작은 가마가 하나 더 뒤따르고 있다. 가마 앞으로는 두 명의 여종이 시집에 가지고 갈 물건을 머리에 이고 걷고 있다.

신부의 가마에는 호피가 씌워져 있으며, 이를 대신하여 무명으로 된 살바로 가마를 엑스(X)자로 결박하는 경우도 있다. 신부의 꽃가마를 엑스자로 결박하는 것은 신부가 전리품으로 다루어지던 유목시대의 유습으로 결박을 의미하며, 동시에 부정방지, 시집살이에 대한 상징으로 신부가족들의 신부에 대한 강한 집착과 애착을 의미한다. 살바로 쓴 무명은 우귀 후에 신부가 속옷을 지어 입었다. 호피는 호랑이가 백수의 왕이고 용맹하기 때문에 액과 잡귀를 막기 위한 부적과 같은 의미로서, 결박의 부정방지와 같은 의미이다.

가마 안에는 오랜 시간을 가마 안에 있어야 하는 신부를 위해 요강과 짚방석을 놓고, 그 아래에는 목화씨, 찹쌀, 고추, 숯, 종이조각, 형곶조각, 소금 등을 놓았다. 꽃가마와 꽃방석, 방석 밑에 숯과 고추, 곡식씨앗은 다산과 농사의 풍요를 의미하며, 종이조각, 형곶조각, 소금, 쌀봉

지는 성황당을 지날 때 벽사의 의미로 잡귀를 막기 위해 한 조각씩 던지고 지나가기 위한 것이다(이광규, 1985).

<표2>의 혼례과정에 따른 풍속은 유목사회에서부터 이어져온 혼례전통,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부계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덕 등을 주로 상징한다.

2. 혼인의례와 혼례복

1) 자장(資粧)과 사치금지령

자장이란 신부의 집에서 준비해야 할 신부의 새살림을 의미한다. 자장의 품목은 대개 여자가 시집가서 입을 옷가지, 살림도구 등을 말하며 치장, 장립, 또는 비수개라고도 한다. 부모들은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었다가 그것으로 옷장을 만들었으며, 딸이 어렸을 때부터 틈틈이 천을 짜서 옷감이나 이불감으로 마련했다고 하니 자장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컸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1994a, 1994b). 18세기 이덕무는 「청정관전서」에서 자장의 폐단에 대해 “딸을 시집보내려면 혼수를 마련하는데 많은 제물이 들기 때문에 딸을 낳으

면 집을 망칠 징조라 하고 어린 딸이 죽으면 사람들이 얼마의 돈을 벌었다는 말로 위로하는데, 이것은 인륜과 도덕이 여지없이 타락한 것이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이덕무, 1980)라고 개탄하기도 하였다.

많은 양의 혼수를 준비해야 하는 자장에 대한 각 집안의 부담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치풍조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국내산 직물의 사용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직물을 사용하는 풍조로, 이로 인하여 혼기를 놓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에서는 혼인에 따른 사치를 막기 위해 혼례에 가장 대표적인 사치품목인 수입된 채단(綵緞)을 금지하는 금령과 혼례에 따른 사치를 금하는 법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안은 여자들이 사는 규중(閨中)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직접 살펴 금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대궐 안과 밖의 신하가 술선수범하여 사치를 금할 것을 강조하였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혼례용품과 국가의 조력

조선시대에는 개인의 혼인을 위해 국가에서 물품뿐 아니라 사람도 지원하는 제도를 실행하였다. <그림 1>의 초행에서 청사초룡을 들고 있는 사람, 말을 끌고 있는 인물, 호위군은 모두 군의 하급관리로서 개인의 혼인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한 인력이다. 그 뿐 아니라 가마, 수식, 의복으로부터 신부의 단장을 맡아하는 수모, 신랑, 신부의 성장에 필요한 사모관대, 활옷에 이르기 까지 빌려주는 제도를 조선초기부터 실행하였다. 이는 개인의 혼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에서도 혼인은 대례라 하여 가장 중요한 의례로 꼽았으므로, 다른 의례에 비하여 준비해야 할 물품이 더 많았다. 혼례에 필요한 상당한 물품 중에 신랑, 신부의 집에서 혼례절차마다 준비해야 할 물품은 각각 다르며, 신랑 측보다 신부 측이 준비해야 할 물품이 더 광범위하다. 초행 시 신랑행차에 필요한 물품은 신랑 집에서 준비해야 한다. 혼례에 필

요한 물품은 당대(當代) 풍속에 따른다고 하였다. 신랑 초행에 필요한 물품을 1893년 『광례람(廣禮覽)』에서 살펴보면 “장복과 사모, 사모 밑에 쓰는 이엄(耳掩), 물소뿔 띠, 황색 주머니, 보랏빛 창의, 황색 주머니 매는 녹색 실, 백마, 무명 일곱 자, 등롱 두 쌍, 홍촉 두 쌍, 흑의 여섯 벌, 산 기러기, 한 쪽 짜리 붉은 명주 보자기, 말의 코를 장식하는 붉은 실이 필요하였으며, 안보와 배종하인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신랑 집에서는 납폐, 혼례 직후 신부가 시부모를 찾아뵙는 신례(新禮), 해현례(解見禮)에 쓸 물건도 준비해야 한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전안례의 필요한 물품은 신부의 집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1893년 『광례람(廣禮覽)』에 기록된 전안례의 필요한 물품은 “지의, 모란병풍, 문에 켜놓는 햇불, 행보석. 전안상에 까는 붉은 보자기, 큰 촉대 한 쌍, 큰 홍촉과 심지가 붉은 초 한 쌍, 촉롱 두 쌍, 붉은 나조 두 쌍, 흑은 네 벌이며 배종하인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신부 집에서는 납채, 혼례, 신례, 신방꾸미기에 필요한 물품도 마련해야 한다. 개인이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혼례용품의 가질 수 때문에 혼례용품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여해주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가세가 비록 가난 할 지라도 양반은 물론 상민들도 혼례를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09).

국가는 혼례의 조력자로 도움을 주는 동시에 혼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기에 따르면 “혼례는 예의 근원이며, 혼례의 의미는 두 성(姓)의 점을 합쳐 위로는 중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후손을 잇는 것”이라 하여 혼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혼인을 주도하여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 자손 가운데 혼수 비용이 없어 혼인 못하는 사람들은 직접 혼수를 부담해 주며, 딸이 30세가 넘었는데도 혼인시키지 않는 집의 가장에게 벌을 주게 하였다. 이는 나이가 들었는데 혼인하지 못한 여자가 많으면 그 여자들의 원망이 조화로운 기운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이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도 혼인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였던 근본적인 요인은 조선시대에 혼인

이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에 조세를 납세하여 국가 재정의 기반을 제공하는 양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주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3) 대례와 신랑 신부 혼례복의 '섭성(攝盛)'

조선시대는 유교의 기본이념인 「주자가례」에 의해 관혼상제를 예로서 행하고 복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의 시작이라 여겼다. 하지만 혼례는 관혼상제의 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례로 여겨 '섭성'이 실행되었다. 섭성이란 일반인도 대군과 명부의 예복을 혼례복으로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섭성의 본뜻은 신랑, 신부가 타는 수레나 복식을 평소 자신의 신분보다 한 등급 위로 착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서민층의 신랑도 사모관대를 입고 혼례를 치루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혼례복의 섭성은 오래된 풍속으로 굳어졌다. 이에 따라 초례청의 신랑은 일생 최대의 의복인 관복을 입고 신부는 명부의 예복을 차려입는다. 신랑의 복식인 사모관대는 관리들의 기본관복으로 사모와 단령, 품대, 흑화로 구성된다. 신부의 예복은 원삼, 활옷이 대표적인 혼례복으로 신분사회인 조선시대에 대다수의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입어보기 어려운 옷으로 소수의 사람만이 입을 수 있도록 허용된 옷이다.

혼례복의 '섭성'은 일시적으로 상층을 의미하는 사회적 신분을 허용하면서도 각자가 속해있는 개인적 신분에 따라 허용하는 복식에 차등을 두었다. 신랑 혼례복에 대한 규정을 15세기 『국조오례의』에서 살펴보면 “관직이 있는 자는 공복에 복두를 하고, 문무 양반의 자손과 급제자와 생원은 사모에 각대를 두르고, 서인은 입자(갓)에 술띠를 두른다”고 하였다. 신부의 경우 궁중에서 착용되는 원삼에 비하여 서민의 원삼 혼례복은 전체적인 치수가 작고, 소매의 색동이 여러 층을 이루며, 흉배가 없고, 부금을 하지 않는 등 궁중예복과 차등을 주어 국가 정책의 기본(이진영, 1989)인 개인적 신분에 대한 복식규제를 실행하면서 상하존비의 유교 기본정책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섭성' 제도는 사치풍조가 만연할수록

신분 제도가 문란해질수록 도를 더해간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신분질서가 와해되고 있던 개화기 초례청을 표현한 <그림 2>의 대례 장면을 보면 신랑이 왕에게도 제한되어 있는 색상인 노랑단령포를 입고 있는 모습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 신부의 활옷
(출처: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4) 혼례복의 의미

조선시대의 복식은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앞서 내면적인 정신세계에 복식미의 근본을 두었던 것이 당시 복식풍속이므로 혼례복의 조형적 특성, 즉 형태, 색채, 소재, 문양에는 혼인 후에 삶에서 바라는 남녀의 소망이 각각 담겨져 있다.

조선시대복식의 색채는 음양오행설에 입각하여 혼례복에는 색채, 문양, 소재에 각각 당시의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 혼례복에는 적색과 청색계열의 색상이 주로 사용된다. 이 두 가지 계열 색상의 의미는 생명의 색, 생기의 색으로 기쁜 일인 길례를 의미하며, 장수와 부귀를 의미한다(김선경, 1990). 또한 주술적인 의미로 악귀를 쫓거나 예방하는 벽사의 색이며, 음양의 개념으로 청색은 남성, 홍색은 여성을 의미한다.

남녀 혼례복에 사용되는 청홍계열의 색상은 신랑의 관복, 혼례복 속에 입는 녹의홍상, 홍장삼, 홍색의 활옷, 녹색의 원삼, 신부의 붉은색 연지화장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양의 기운이 강한 벽사의 색상으로 기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안인희, 2010). 특히 활옷에 사용된 걸감의 홍

<표 3 > 혼인의례에 따른 혼례복 풍속과 상징성

혼인의례 & 혼례복	풍속과 해석	풍속	상징성
자장		딸을 낳으면 집을 망칠 징조라 하고 어린 딸이 죽으면 돈을 벌었다 위로함	자장에 대한 부담
		수입채단 금지	혼수 사치 금지
혼인에 대한 국가조력		혼례용품대여	혼인장려
		혼인을 시키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이나 혼인비용의 국가부담	*상서롭지 않은 기운 의미 *국가의 조세확보
섭성	신랑 혼례복	사모관대	*대례 *사회적 신분, 개인적 신분 표시
	신부 혼례복	족두리, 원삼 또는 활옷	*신분체제 붕괴
혼례복의 의미	색채	청홍계열	*길례, 벽사, 음양의 개념
	문양	백로문, 호접문	음양화합
		연화문, 모란	다산, 다남
		봉황	신부의 부덕으로 인한 가문의 영광
	소재	모시적삼	*좋은 일 *시집살이의 어려움
	형태	사모관대	*입신양명

색과 안감의 청색은 각각 홍색은 화(火), 안감의 청색은 목(木)을 의미하므로 이 두 색상은 서로 상생작용을 한다.

혼례복에 사용되는 직물의 소재에도 의미가 내재되어있는데 이는 촉감과 시감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감성적 특성(김성련 외, 1998)에 의해 결정된다. 혼례복의 소재에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요소는 신부의 혼례복 속에 입는 모시적삼이다. 이는 모시처럼 한 평생 시원한 일만 생기라는 의미이다(유송옥, 1998). 이는 조선시대 여자들에게 혼인이 몹시 어려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신부의 혼례복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활옷 문양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다산, 기복, 벽사, 부덕(婦德)의 의미이며, 조선시대 여자가 바라는 가장 대표적인 소망이다. 문양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활옷이 혼례복 중에 가장 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복식으로 동물문, 식물문, 자연문, 문자문 등 다

양한 문양의 수가 놓여있다. 부부의 금슬과 음양화합을 상징하는 문양으로는 백로문, 호접문(胡蝶文)이 있으며, 다산(多産), 다남(多男)을 상징하는 문양으로는 연화문, 불수, 모란이 대표적이다. 부유함과 높은 지위의 상징은 모란과 불수,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은 물결, 불로초, 괴석, 천도복숭아, 불수가 있다. 또한 신부의 부덕과 인격으로 가문의 영광을 의미하는 문양은 봉황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상징성을 내포한 문양의 수를 놓기도 하지만, 이성지합(二姓之合), 만복지원(萬福志願)등 직접적인 문자문의 수를 놓기도 한다.

신랑이 착용하는 혼례복인 사모관대는 관직 진출에 대한 입신양명을 상징한다. 초례청의 신랑의 사모관대는 양반의 조건인 관직을 의미하며, 조선시대 남성들에게는 평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이다. 조선사회의 신분은 사실상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진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양반이란

용어가 직역 개념에서 신분개념으로 바뀌었다. 조선사회는 신분사회이지만 양반이란 태생적으로 획득되어지는 법적 개념이 아닌 합의된 사회의식이다. 따라서 지배층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관직으로 진출하기만 하면 다양한 균역면제, 경제적으로 지주의 위치를 차지하는 등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2009). 이와 같이, 남녀 혼례복에는 조선사회에서 기대하는 남녀의 소망과 희망이 내재되어 있다.

<표 3>은 혼인의례에 따른 혼례복 풍속과 상징성을 제시한 것으로 성리학에 의한 신분 정책, 부덕, 음양사상등이 내재되어 있다.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혼인의례와 혼례복의 스토리텔링 원천자료를 개발하여 다양하고 흥미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혼례절차에 관한 스토리텔링 원천소스를 제시한다.

조선 초기 개혁가들은 주자가례에 입각한 유교식 혼례는 중국의 혼례제도인 친영(親迎)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혼례방식인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오랜 풍습으로 인하여 조선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육례의 형태로 조선사회에 수용되었다.

조선시대 육례절차는 혼례 전 준비 과정과 혼례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혼례를 치루기 이전의 준비과정은 혼인을 타진하는 혼담, 청혼의 의미를 지닌 납채와 사주보내기, 혼인날을 받는 연길,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납폐 순으로 이루어진다. 혼례 과정으로는 신랑, 신부가 초례청에서 행하는 대례(大禮),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우귀(于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각 과정에 내재된 속담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혼담과정에 내재된 속담은 혼인의 필연성을 의미한다. 납채에 담긴 풍속은, 중매혼만을 정식 혼례로 인정하는 당시의 혼속을 상징한다. 연길

후 제례 면제에 대한 풍속은 실리적 의미를 지닌다. 납폐의 수량을 제안하는 풍속은 예를 갖추되 혼인사치를 금하고자하는 의미이다. 초행시의 후행의 규모는 신랑 집안의 부와 위세를 과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대례의 상징적 요소는 혼례시간, 짚불, 기러기, 표주박, 송백저가 있으며 이는 각각 음양의 조화, 액막이, 부부의 의리, 일심동체, 절개를 의미한다. 우귀 시에 신부가 탄 가마를 결박한 무명으로 된 엑스(X)자 살바나 가마 위를 덮는 호피는 유목시대의 유습이며, 가마 안에 넣어놓은 물건은 벽사의 의미로 해석된다.

둘째, 조선시대 혼인의례와 관련된 혼례복 풍속에 관한 스토리텔링 원천자료를 제시한다.

신부집안의 혼수인 ‘자장’에 대한 각 집안의 부담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해졌다. 또한 혼인사치를 금하기 위해 수입채단 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혼례용품의 대여제도를 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혼인을 지원하고,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혼인장려 뿐아니라 딸을 30세가 넘도록 혼인시키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상서롭지 않은 기운이 국운에 미친다는 주장이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재정의 기반을 제공하는 양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국가정책이다.

대례 시 신랑 신부가 착용하는 혼례복은 섭성에 의하여 착용이 가능해진 복식으로 혼례가 대례임을 의미한다. 섭성제도는 사치풍조가 만연할수록 신분 제도가 문란해질수록 도를 더해갔다. 그로 인하여 조선후기로 갈수록 서민층의 신랑도 사모관대를 입고, 신부는 원삼, 족두리를 쓰고 혼례를 치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분체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혼례복의 조형적 특성, 즉 형태, 색채, 소재, 문양에는 혼인 후에 남녀의 삶에서 바라는 소망과 희망이 각각 내재되어 있다. 혼례복의 색채는 주로 적색과 청색계열의 색상이 사용된다. 이 두 가지 계열 색상은 양의 기운이 강하여 기쁜 일인 길례를 의미하며, 장수와 부귀를 의미한다. 또한 주술적인 의미로 악귀를 쫓거나 예방하는 벽사의 색이다. 또한 음양의 개념으로

청색은 남성, 홍색은 여성을 의미한다.

혼례복에 사용되는 직물의 소재에도 의미가 내재되어있는데 대표적인 요소는 신부의 혼례복 속에 입는 모시적삼으로 한 평생 시원한 일만 생기라는 의미이다.

신부의 혼례복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문양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신부의 활옷에는 동물문, 식물문, 자연문, 문자문 등은 각각 다산, 기복, 벽사, 부덕(婦德) 등을 의미한다.

신랑이 착용하는 혼례복인 사모관대는 양반의 조건인 관직을 의미하며, 조선시대 남성들에게는 평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입신양명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의례와 혼례복과 관련된 풍속에는 다수의 스토리텔링 원천자료가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스토리텔링으로 개발되어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국사편찬위원회. (2005).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서울: 두산동아.
- 국사편찬위원회. (2005).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서울: 두산동아.
-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2009). *조선양반의 일생*, 파주: 글항아리 .
-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2010). *조선 양반의 일생*. 파주: 글항아리.
- 김선경. (1990). *조선의 혼신*. 서울: 동문선.
- 김성련 외. (1998). *피복관리학*. 서울: 교학사.
- 박정혜. (2012). *고전 속 혼인 옛보기*.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박정희. (2004). *문화원형 콘텐츠 비즈니스 활용 연구: 고구려 고군벽화를 중심으로*. 서울과 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인희. (2010). 박물관 복식전시물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2), 313-323 .
- 안중숙. (2006).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미용문화의 특성.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3), 73-85.
- 원민관. (2004). 문화콘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즈를 통한 수출활성화방안: 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6(3), 297-318.
-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수학사.
- 이광규. (1985). *한국인의 일생*. 파주: 형설.
- 이덕무. (1978). *국영청전관전서 6권-20*. 북한: 민족문화추진회.
- 이진영. (1989). *한국원삼의 유래규명을 위한 형태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이태옥. (2005). 안동 김씨 출토 조선후기 원삼의 특징,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2), 61-74 .
- 이하정. (2010). 조선후기 유물에 나타난 십장생문의 조형성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1), 131-139 .
- 정연학. (2011). 일생의례와 물질문화- 출생의례와 혼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7, 67-102 .
- 정종수. (2008). *사람의 한평생*. 서울: 학고재.
-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1994). *주택과 가족 생활풍습*. 북한: 과학백과사 전종합출판사.
-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1994). *조선의 민속 전통*. 북한: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최혜실. (2006).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2). *우리문화원형의 디지털 사업 종합계획*. 서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Carl Gustav Jung, (1921). *Psychologische Typen, Zürich*. Leipzig : Rascher.